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80.63 (-1.66)	680.67 (-2.2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829 (-0.044)	1398.60 (+7.70)

이메일 보내듯 간편 수수료 ↓ 안정성 ↑

CBDC 디지털화폐 CBDC 온다 (상) 외국인 송금

#. 2030년, 네팔에서 온 니루타 싱(가명·35세)은 한국에서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최근 니루타 싱은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을 '디지털 화폐(CBDC)'로 받기로 했다. 니루타 싱은 "부모님께 은행으로 매달 100만원씩 보내면 수수료도 많고, 기간도 오래걸려 여행을 통해 전달했다"며 "앞으로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바로 보낼 수 있어 안심된다"고 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화폐로, 현금 1000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000원을 토큰으로 전환, 전자지갑에 넣고 결제·이체할 수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전 세계 중앙은행 비율은 86%를 차지한다. 설문에 참여한 65개 중앙은행 기준(선진국 중앙은행 21개, 신흥국 중앙은행 44개)으로 약 56개 은행이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 86% CBDC 준비 모바일 결제 늘어 현금사용 감소 가상자산 수수료 없지만 변동성 ↑ CBDC 발행시 안정적 거래 가능

◆ 하루만에 치솟는 가상자산 "투자목적 커"
중앙은행이 CBDC 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이체가 증가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결제수단은 현금에서 실물(신용·체크)카드, 모바일기기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1%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로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4000억원으로 3.4% 감소했다. 늘어나는 가상 자산 또한 CBDC 개발을 부추겼다.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 하더라도 여전히 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국가를 넘어 거래할 경우 환차손이 발생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지만 투자의 목적이 강해

(일반화폐·CBDC·암호화폐 비교)

	일반화폐	CBDC	암호화폐
발행주체	중앙은행	중앙은행	민간
발행형태	동전·지폐	전자	전자
발행규모	중앙은행 재량	중앙은행 재량	사전에 결정
교환가치	액면가 고정	액면가 고정	수급에 의해 결정

변동성이 크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가 1억원일 경우, 차 한대를 0.5비트코인으로 예약했다면 이 가격은 5000만원으로 거래돼야 하지만, 순식간에 8000만원으로 오를 수도, 2500만원으로 내릴 수도 있다. 단순히 자동차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가 하루아침에 급증·급감,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1달러가 1300원이라면, CBDC를 통해 국가 간 거래시에는 1도(달러)과 0.000769도(원화)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 국가간 CBDC 플랫폼 "송금비용 낮춰"

중앙은행은 CBDC 개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화폐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확인 절차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기관 간 거래비용이 줄면 소비자들의 송금 수수료 등이 싸질 수 있다"라며 "이메일을 보내듯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외송금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2021년 5월 133만명에서 2023년 5월 143만명으로 7.3% 증가했다. 외국인 4명 중 1명은 연 12회 이상 송금했다. 2000만원 이상 송금하는 경우는 2021년 5월 22.4%에서 2023년 5월 29.3%로 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만명이 부족했던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은 2042년이 되면 61만~155만명까지 부족해진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I기술이 국가 경쟁력… 윤리문제 중요”

2024 뉴 테크놀로지 포럼 유성준 세종대 AI융합연구원장 “연구시설 부족… 국가지원 필요”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함께 기업의 인재양성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특히 AI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AI와 SW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엔진인 만큼, SW·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1등 국가를 목표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초현실사회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란 주제로 열렸다. **(관련기사 L4·L5면)** 이날 강연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AI 융합교수연구원장인 유성준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다. 그는 "AI가 생성하는 답변이나 결과물이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편향을 방지하고, AI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이어 AI 연구를 위한 한국의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보유한 NVIDIA의 고성능 GPU는 약 2000개 수준이지만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부족한 수준"이

라며 "AGI연구는 자본과 인프라가 필수적인 분야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은 생성형 AI 시대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AI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생성형 AI 경영 패러다임을 셋팅하고 오픈소스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는 기술을 익힘으로써 자본과 기술 격차가 심화 되는 상황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배 딥파인 대표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XR 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XR 콘텐츠 제작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고품질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실시간 처리와 초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XR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는 "AI는 조력자일뿐,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커버스토리

“적자재정·재정의 정치화 방지 필요”

국회, 재정준칙 논의 '시동'

국가채무 1067조… 지속 증가세 재정 건정성 위한 제도 장치 논의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균형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지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고 전화와… 컷오프 내가 앞은 것” /사진 뉴스1
- ▲ 홍준표, “이재명 법카 기소, 먼지떨이 식 수사 불과… 민주당 반발만 부를 것”

- ▲ 민주당, 국힘에 ‘쌀값 안정 긴급회동’ 제안
-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된다”



- ▲ 이준석 “尹은 여론조사표 볼 줄 몰라… 몇 대 몇만 보는 수준” /사진 뉴스1
- ▲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유예돼야…野는 800만 투자자와 싸우자는 건가”

구광모號 7년... 적재적소 인재 배치, ABC 중심 '미래준비'

(AI·바이오·클린테크)

LG그룹, 2024 정기 임원인사

구광모 회장 7년차를 맞는 LG그룹이 '미래 준비'와 '경영 안정'에 방점을 둔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조직은 전자 중·장기 전략인 '2030 미래비전' 가속화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도전적 목표'를 세워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한 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됐다.

(주)LG와 각 계열사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미래 성장을 위해 변화 속도를 높인다는 기조 아래 ABC(AI·바이오·클린테크)를 중심으로 '미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분야에서 역량과 성과를 입증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변화를 노리는데 중점을 뒀다.

◆ABC 중심 미래 준비...R&D 임원 지속 확대

LG는 차별화된 미래 사업 역량 확보와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신규 임원 중 23%(28명)를 ABC(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에서 발탁했다. 특히 AI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80년대생인 LG AI연구원 이문태 수석연구위원(상무), 이진식 수석연구위원(상무), LG유플러스 조현철 상무 등 3명을 신규 선임했다. LG는 미래 사업 역량 확보라는 중장기적관점에서 연구개발(R&D) 분야 차세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신규 임원 21명을 포함해 그룹 연구 개발 임원 수는 218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신임 사장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사장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사장

LG전자, 4개 사업본부 명칭 재편
유플러스 대표이사에 홍범식 선임
구광모회장 영입 대표적 인물 꼽혀

CNS 대표이사 현신균, 사장 승진
LG엔솔 부사장 한웅재, 전무 이한신

고객가치·영업·마케팅 등 분야에서
여성 7명 선임... 女 임원 총 65명

◆4개 사업본부 명칭 재편 "AI 사업 주도"

LG전자는 H&A(생활가전)·HE(홈엔터테인먼트)·VS(차량 부품 사업)·BS(B2B 사업부) 등 기존 4개 사업본부를 ▲HS(홈어플라이언스 솔루션) ▲M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VS(차량 솔루션) ▲ES(에코 솔루션) 사업본부로 각각의 명칭을 재편했다.

HS사업본부는 플랫폼사업센터를 본부 직속으로 두고, AI홈 솔루션 사업을 주도한다. 기존 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이 이어서 HS사업본부장

을 맡는다. MS사업본부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기존 BS사업본부에서 IT등 사업부를 이관 받아 TV 사업과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와 플랫폼에 시너지를 낸다.

LG전자는 HVAC 사업을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한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기업간거래(B2B)의 중심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서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을 목표로 유니콘 사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LG유플 수장 교체... LG CNS 대표 이사 승진

LG유플러스는 4년만에 홍범식(주)LG 경영전략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홍 사장은 2019년 LG에 합류한 후 경영전략부문장으로 그룹의 경영전략을 총괄해왔다. 구광모 LG 회장이 취임 후 영입한 대표적 인물이다. 홍 사장은 LG에서 그룹 차원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경쟁

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 본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SMS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전환(AI) 컴퍼니로 도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LG CNS는 현 대표이사인 현신균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IT 전문가인 현 사장은 취임 후 4년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LG CNS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2017년 말 LG CNS에 합류해 D&A 사업부장, CTO 등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업무혁신 그룹장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에서 글로벌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女임원 7명 신규 선임...전체 65명 '역대 최대'

LG는 성별,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실력과 전문성으로 인재를 중용하는 기조를 지속하며 리더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고객가치, 영업, 재무,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임원 7명을 신규 선임했다. LG 내 여성 임원 수는 2018년 29명에서 역대 최다인 65명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LG 내 80년대생 임원 수도 모두 17명으로 5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그룹 내 변화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또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내년 상반기 공급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해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사에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Trip Level Cell·사진) 4D 낸드플래시를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다.

또,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항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Single Level Cell, 1개)-MLC(Multi Level Cell, 2개)-TLC(Triple Level Cell, 3개)-QLC(Quadruple Level Cell, 4개)-PLC(Penta Level Cell, 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다.

/김서현 기자 seoh@

>> 1면 '디지털화폐 CBDC...'서 계속

"다중 CBDC 플랫폼 등 외국 송금증가 대비를"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까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가간 송금시 거치게 되는 기존 결제 인프라 스위프트(SWIFT)와 여러 환거래은행 중심의 네트워크는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들의 CBDC를 연결하는 다중 CBD 플랫폼을 마련,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전, 사우디서 4조 '잭팟'... 가스복합사업 2건 수주

루마1·나이리아1 건설·운영 낙찰 25년간 전력판매 매출 4조 전망

한국전력이 사우디의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을 연속 수주했다. 25년간 전력 판매 매출이 약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아1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 발주 ESS 연계 태양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광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에서 한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수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아1 사업은 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각각 북동쪽 80km, 470km에 위치한다.

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원

(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 또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해외 동반수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해 건설 중이다. 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해,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올해 민생예산 109조 중 95조 집행... "체감경기 개선 노력"

기재부 '재정집행 점검회의' "취약계층·지역경제 활력 위해 복지·일자리·SOC 중점 관리"

정부가 올해 민생예산 109조 원 가운데, 1~10월 누적기준 85%가 넘는 95조 원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복지 지

원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집행실적을 논의했다. 민생예산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을 비롯해 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이 의제에 올랐다.

안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 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말 기준 중점관리대상 사업 예산(109조8000억 원)의 86.5%인 95조 원을 집행하는 등 원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혁신 DNA 담은 대형 전기SUV ‘아이오닉9’ 글로벌 첫 선

현대차, 전기차 리딩기업 우뚝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리딩기업으로 ‘혁신 DNA’를 담은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을 공개했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세 번째 모델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대형 SUV 모델로 확장하며 글로벌 전동화 리더십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을 21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책임자(COO) 호세 무뇨스를 비롯해 글로벌 미디어, 인플루언서, 오피니언 리더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할 대형 SUV 모델로,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 2열 및 3열 공간성, 최대 7인승을 갖춘으로써 국내 및 글로벌 고객들에게 전기차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더욱 다양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장 5060mm, 전폭 1980mm, 전고 1790mm로 동급 대형 SUV 중에서도 넉넉한 실내 공



현대자동차가 21일 목요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전동화 SUV ‘아이오닉 9’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아이오닉9이 전시돼 있다. ①아이오닉9의 전측면 ②실내 ③프랭크 모습 /손진영 기자 son@

美 로스앤젤레스서 월드프리미어 동급 최대 휠베이스 실내공간 확장 2열 후방 골프·보스탄백 4개씩 수납

최대 7인승... 전기차 선택폭 넓혀 1회충전 최대 주행거리 532km 달해 배터리 10%~80% 충전까지 18분

간을 확보했다. 2열 후방 기준 수하물 용량은 908L(VDA 기준)로 골프백과 보스탄백 각각 4개를 실을 수 있으며, 프랭크 용량은 88L로 20인치 캐리어도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아이오닉9은 E-GMP를 기반으로 110.3kWh 배터리의 항속형 모델과 성능형 모델로 운영한다. 모두 삼원계(NCM) 배터리를 사용한다.

아이오닉9 항속형 모델(2WD 기준)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NCM9 배터리를 적용해 532km에 달한다. 350k



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18분 걸린다. 아이오닉9 항속형 모델(4WD 기준)은 최고 출력 226kW, 최대 토크 605Nm, 전비 4.1km/kWh, 성능형은 출력 315kW,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m/kWh를 발휘한다.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3km에 달한다.

아이오닉9은 전기차 전력 관리 기술로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다. 아이오닉9은 ▲배터리 온도 제어로 충전 속도를 최적화하는 배터리 컨디셔닝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별 소모 전력을 고려해

배터리 충전잔량(SOC) 예측치를 반영하는 루트 플래너 ▲냉난방 독립제어 소모전력을 줄이는 3존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 등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실생활에서 부족함 없는 주행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이오닉9은 고객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공간을 누리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Built to belong(빌 투 벨롱: 공간, 그 이상의 공감)’의 가치를 지향한다.

Built to belong은 초연결 사회 속에서도 단절감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공동체와 함께 머무르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넉넉하고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객의 일상 속에서 혁신적인 전동화 경험을 선사하는 아이오닉은 아이오닉 5, 6, 5N 모델을 통해 3년 연속 ‘월드카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하는 등 다수의 시상식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해 오고 있으며 아이오닉9을 앞세워 브랜드 입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아이오닉9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현대차의 변함없는 의지와 자신감을 담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구현된 월등한 공간 경쟁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헝가리·미국서 K-푸드 ‘비비고’ 만든다

CJ제일제당, 헝가리에 1000억 투입 2026년 하반기 완공, 유럽판매 돌입 미국 공장 초기투자금 7000억 규모 축구장 80개 크기, 2027년 완공 목표



미국에서는 자회사인 슈완스가 사우스다코타 주 수폴스(Sioux Falls)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북미 아시안 푸드 신공장’ 건설에 돌입했다. 이 공장은 축구장 80개 규모(57만5000㎡)의 부지에 건설된다. 초기 투자 금액은 약 7000억원 규모다. 찐만두·에그롤 생산라인과 폐수처리 시설, 물류센터 등을 갖춘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제조시설로 미국 중부 생산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중부에 위치한 사우스다코타는 도로·항공 인프라가 우수하며, 주 정부가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생산거점으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CJ제일제당은 사우스다코타 공장을 앞세워 비비고의 미국 B2C 만두시장 1위(점유율 42%)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비비고만두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B2C 만두 시장 전체의 성장률(15%)보다 두배 이상 높은 3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생산력 증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 현지 물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려 ‘미국 아시안 푸드 1등 기업’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박민석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공장 부지를 방문,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박 대표는 이번 투자는 미국에서 증가하는 K-푸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생산역량 증대에 나선 것은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에 더욱 힘을 실기 위해서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2019년 3조1540억원에서 지난해 5조3861억원으로 4년간 70%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식품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9%에서 48%로 늘었다.

이 중 유럽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성장하는 등 CJ제일제당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의 전략 지역이며, 미국은 해외 식품사업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해외 현지 생산시설을 꾸준히 늘려 왔다. 미국에는 2019년 인수한 슈완스 공장을 포함해 총 20개의 식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8년 독일 냉동식품 기업 마인프로스트(Maifrost)를 인수하며 첫 생산기지를 확보했으며, 올해 5월에는 프랑스와 헝가리에 법인을 설립하며 현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C2C(해외 생산→해외 수출) 방식을 처음 적용한 베트남 키즈나공장을 준공했고, 최근 호주에서도 OEM 시설을 확보해 현지에서 만두와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지주, 케미칼 유동성 위기설 일축

재무약정 위반 배경 ‘화학 침체’ 작용 내달 사채권자 집회, 특약 조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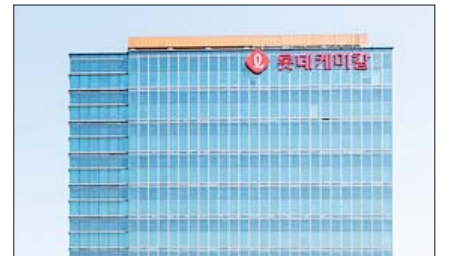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재무 약정 위반 사안과 관련해 유동성 위기설을 일축하는 입장을 21일 냈다. 롯데케미칼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의 재무 약정 위반 사항 배경으로 화학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회사채 관련 재무 특약을 위반했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3개년 동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EBITDA)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의 해당 비율은 9월 말 기준 4.3배로 떨어졌다.

롯데지주는 설명문을 내고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되고 중국의 자급률 향상에 따라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으로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공고 및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 개최를 통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지주는 회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0월 기준 롯데



경기 의왕시 고산로에 있는 롯데케미칼 연구개발센터 전경. /뉴시스

롯데케미칼은 활용 가능한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 가용 유동성 자금 총 4조원 상당을 확보해 안정적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롯데그룹의 10월 기준 총 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5조원에 달한다.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10월 평가 기준 56조원이며,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4조원이다.

더불어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전반에 걸쳐 자산 효율화 작업 및 수익성 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현금유출이 수반되는 신규 및 경장 투자는 계획 조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공장 가동 최적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한 ‘Operational Excellence’ 프로젝트를 상반기 여수공장에 이어 하반기 대산공장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끝으로 롯데지주는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안 관련해서는 롯데지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정성·예측 가능성 강화” vs “경기 변동 유연성 축소”

재정준칙, 해결책인가 위험인가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여당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줄곧 요구한 민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심성 정책 재정에 엄청난 후유증 남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고통을 받는다”며 “각 부문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거로 올수록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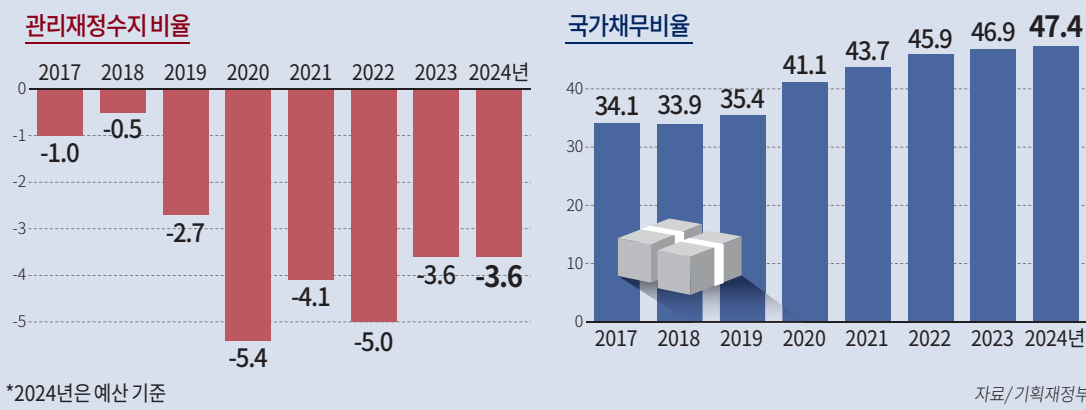
찬성 측

미래세대 부담 완화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선심성 지출 억제, 국가 부채 안정화 열쇠 OECD 35개국 공통 기준, 韓 재정준칙 필요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비율 단위: %, GDP대비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적인 신인도에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중장기적 재정 운용 위해 재정준칙 필요”

간담회 발제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재정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되면서 적자가 아직도 70조원대를 훌쩍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재정의 구조도 문제이고, 경직적인 지출 구조나 세입 기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마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OECD에선 곧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곧 60% 중반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각 정파가 재정 지출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도 결국 재정으로 풀어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해가면서 복지국가로 가자지 그때그때 판단에 맞춰서 영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재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5개국 이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도입했다”며 “이들 중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튀르키예, 캐나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단점도 분명히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개선할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재정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지켜야 한다”며 “좌파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고, 우파는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쓰자는 건데, 이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걸 경쟁해야지,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도보고서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적정 재정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직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송주아 기획재정부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

복지 예산 축소·재정 경직성 등 초래 우려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질 위험
저성장·저출산 시대, 경기 부양책 제약 가능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가격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재정준칙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복지국가 실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

(국민의힘 대표)

>> 1면 ‘국회, 재정준칙 논의 시동’서 계속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

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

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제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탤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보이는

보험

보인다, 나를 위한 신속함
 보인다, 나를 아는 섬세함
 필요한 순간 가장 가까이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

#수어상담센터 #세대별맞춤상담

尹, 인적쇄신·예산안 등 과제 산적

尹, 중남미 순방일정 동안 정국 격양
野, 李 1심 선고 결과에 대정부공세
사정기관 특활비 등 삭감 주장

총리 개각 위해선 野 동의 얻어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치 전방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마련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양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활비·특검법·특검법,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된 대국민담화·기자회견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탐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부 등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

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vs “공제한도 상향”

(興)

(野)

국민의힘 “과세시점 2027년으로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민주당 “기존 250만원 → 5000만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없이 공제한도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장이 팽팽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에 손을 들었지만, 가상자산은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한 것은 금투세 공제액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

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 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이들은 20%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점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연기했고, 2027년도로 또 다시 미루는 세 번째 유예안을 추진 중이다. /서예진 기자

한동훈 “당 차원 민생경제특위 구성… 민생정책 체감”

야당과 차별화 위해 민생행보 추진
중도층 겨냥… 지지율 상승 전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저희의 민생정책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으로서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집중적으로 더 실현해보자”고 주문했다.

이어 “주식시장이나 신성장산업, 노동 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 행보를 계속했다. 지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지도부와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꾸준히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홍철호, ‘기자가 대통령에 무례’ 발언 사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답변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 사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질의한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거냐 했는데 답을 못했다”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



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다.

홍 수석은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께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20일) 입장문을 내고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이 언급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님께서서는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두루뭇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해외여행 특수 잡아라

항공 지연시 반려견 돌봄비 보장... 보험사, 차별화 경쟁

롯데손보, 장기 체류자 위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출시

카카오손보, 재가입 할인 확대
직접 설계하는 DIY 보장도

캐롯손보, 반려동물 케어 위한
해외여행 신당보 선보여



지난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장에서 관광객들이 중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수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연말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 상품에 이목이 쏠린다. 겨울철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보험업계가 해외여행객을 위한 상품과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부터 내국인 출국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지난해 1분기 498만명에서 2분기 495만명, 3분기 626만명, 4분기 652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1분기는 742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13.9% 증가했다. 2분기는 1분기 대비 11.1% 감소한 660만명을 기록했으나 3분기는 717만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출국자 수는 2119만명으로 전년 동기 1619만명은 뛰어넘었다. 출국자 수가 증가 추세인 만큼 올 연말에는 지난해 총 출국자 수인 2271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출국자 증가에 따라 보험업계도 관

련 상품 출시와 혜택 제공을 늘리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를 위한 '해외장기체류자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유학, 어학연수, 해외 출장 등 장기간 해외 체류자를 위해 기획했다.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종 플랜(최적가, 밸런스, 끝판왕)으로 보험가

입금액을 차등화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늘어나는 해외장기체류자들을 위해 보험상품을 출시했다"며 "해외 사건·사고 피해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보장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해외여행보험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무사고 환급금' 지급하고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즉시 지급' 서비스 등 차별화된 보험 혜택으로 해외여행보험 출시 1년 4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2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장기 가입 사용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재가입 할인 대상을 전제로 확대했다. 기존 3개월 이하 단기여행상품 재가입에만 적용한 5% 할인 혜택(2년 이내 재가입 시)을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자동 적용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

는 "해외 체류 기간과 상황에 맞춰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직접 더하고 빼 설계하는 DIY 보장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달 반려인을 위한 해외여행보험 신당보를 출시했다. 반려인들은 해외여행 중 반려견(묘)을 위탁돌봄서비스나 펫시터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해당 담보는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시 반려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비용을 보상한다.

귀국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으로 인해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반려견(묘)을 맡긴 위탁돌봄서비스나 펫시터 서비스 추가 비용을 여행 기간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금액(10만 원) 내에서 보상한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담보 출시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항공권·숙박 할인에 '무비자' 中여행 마케팅 활발

카드사, 충성고객 확보경쟁 후끈
삼성카드, 아고다 숙박 20% 혜택
롯데카드, 호텔스닷컴 결제 할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객을 잡기 위한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연차를 소진하기 위한 직장인과 수능을 마친 수험생 등 해외여행 수요를 예상해선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신한 카드는 제주항공과 함께 항공권 할인 행사에 나섰다. 오는 30일까지 항공권에 15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9만원을 돌려준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객실과 스파를 할인한다. 각종 부대시설도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아고다와 손을 잡았다. 비자(Visa) 브랜드 삼성카드로 아고다에서 350달러 이상 사용하면 70달러를 아낄 수 있다. 할인율만 놓고 보면 20% 할인하는 셈이다.

그간 한국인 관광객의 '러브콜'을 받아온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항공업계가 수능이 끝난 수험생 가족과 연차를 소진하기 위한 직장인을 겨냥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다. 급증하는 여행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것.

최근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그간 관광을 위해 별도의 비자를

발급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 항공업계가 중국행 노선을 증설하는 등 대응에 나서자, 카드업계 또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여행 수요가 중국으로 옮겨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카드사 중 가장 먼저 중국여행 마케팅에 돌입한 곳은 비씨카드다. 비씨카드에서 발급한 유니온페이(UnionPay) 카드로 중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1%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한도는 20만원이다. 18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중국 무비자 정책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무비자 정책과

무관하게 중국여행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었으나 관련 소식을 접하고 속도를 내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라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롯데카드는 마스터 브랜드 신용카드로 호텔스닷컴에서 결제 시 전세계 호텔 20% 할인을 적용한다. 최대 20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위비트래블X아고다' 행사를 진행하고 숙박 100달러 할인을 선보인다.

카드업계는 연말까지 해외여행 마케팅을 지속할 예정이다.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 시장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올해 하나카

드를 제외한 지주계열 카드사가 트래블 카드를 연달아 출시한 까닭이다.

한편 해외여행 시장 공략에서 신한 카드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해외 승인 잔액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카드다. 지난 9월말 기준 2조 9058억원이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20.8%를 차지한다. 이어 하나카드 승인잔액은 2조 7251억원으로 점유율 19.6%를 기록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99% 회복했다는 판단이 나오는 만큼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기"라며 "충성고객 1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마케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100엔당 800원대 넘보는 엔화... '슈퍼엔저' 오나

트럼프 당선 여파, 달러강세 지속
BOJ 금리 불확실성도 약세 요인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미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정책 불확실성이 엔화 가치를 끌어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엔화 가치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지난 7월까지 이어졌던 '슈퍼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7.38원(0.82%) 오른 100엔당 902.6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원·엔 환율은 이를 만에 100엔당 900원대를 회복했지만, 여

전히 900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엔화는 지난 19일 100엔당 899.7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고, 이어진 20일에도 100엔당 895.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 800원대에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3개월 만이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도쿄외환시장 엔·달러 환율도 상승(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을 거듭해 지난 12일 이후 달러당 155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슈퍼엔저'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엔화 가치는 지난 6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

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면서, 엔화 가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일 기준금리 차 축소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연방정부 재정 확대·적대적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정 확대로 미국 국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이 대선 직후 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전망은 약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가

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2월 18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58.9%로 전망했다. 지난 1일 기록했던 82.9%에서 24% 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에다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완화의 추가 조정을 어떤 시기에 진행할 지는 앞으로의 경제·물가·금융 등 상황에 달려 있다"며 "매회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 경제·물가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정책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

라고 말했다.

이어 "입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제활동의 개선과 임금의 견고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우에다 총재의 메시지를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정책 선호)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는 12월 금정위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우에다 총리가 매파적(긴축 정책 선호)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12월 금리 인상 관측이 더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엔화의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강달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으로, 유로 및 엔화에 대한 추가적 약세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생산량 줄이고 비상경영 돌입 철강업계 위기속 몸집 줄이기

중국산 저가제품 국내시장 잠식
美 '트럼프 리스크'도 부담 작용

포스코, 포상 1선재공장 폐쇄 결정
현대제철도 포항2공장 폐쇄 추진
동국제강, 야간 생산 시스템 전환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재공장 /포스코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주요 철강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갖추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대외 환경 악화 우려가 제기돼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10월 기준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지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선재와 같은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이 내수에서 소비되지 못해 남은 재고 물량 수출하고 있어서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세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공장 가동률도 매년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분

기 기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포인트, 4.3%포인트 낮아졌다. 동국제강도 봉강형이 9.5%포인트, 후판이 2.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가동률 조정과 몸집 줄이기 등 비상경영에 나서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일 포상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포상 1제강공장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섀utdown이다. 내수 저가재 시장은 이미 해외 저가 수입재 중심 시장으로 재편돼 해당 설비 조정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저가재 가격 중심의 경쟁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자동차용 CHQ(고강도 볼트), 스프링강, 베어링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선재 생산·판매를 재편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또한 철강업황 불황의 여파로 포항2공장 생산시설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와 협의 중에 있지만 사측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현대제철은 중국 베이징 법인인 현대 스틸 베이징 프로세스 자산과 부채를 지난 7월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압연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동국제강은 지난 6월부터 야간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철근 수요가 급감해 고강도 감산 조치에 취한 것이다. 이는 야간 전기료가 낮 시간의 반값 이하로 저렴하기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트럼프 리스크'까지 철강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1기 트럼프 정책을 고려할 때, 국수출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에 시행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 수입 철강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거나, 쿼터제 축소로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입 쿼터제 축소,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21일 부산 영도 HJ중공업에서 개최된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 명명식 행사장에서 김경배 HMM 사장(왼쪽 다섯번째), 안젤리키 프란고우 나비오스마리타임 회장(왼쪽 여덟번째),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MM

HMM, 국내 최초 LNG추진선 2척 도입

77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넷제로 박차... 내년 1월 투입

HMM이 LNG를 연료로 하는 7700 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도입한다.

21일 HMM에 따르면 이날 부산 영도 HJ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가진 LNG 추진선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는 내년 1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선박은 갈수록 강화되는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 중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선박이다. 그리스 선주사인 나비오스가 국내 조선사인 HJ중공업에 발주했으며, HMM이 최대 14년간 용선해 운항한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도), FuelEU Maritime(해운연료규정) 등 많은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들은 운항이 어려울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선

박은 선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선박의 대체연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LNG가 유용한 저탄소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프랑스 해운조사 전문가 알파라이너(Alphaliner)는 올해 전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55%가 LNG 추진선이라고 분석했다.

LNG 추진선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각각 30%와 85%,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99% 감소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는 내년 1월부터 지중해와 극동아시아를 잇는 HMM의 독자 노선인 FIM 서비스에 투입돼 부산~중국~인도~지중해 등을 운항할 계획이다.

HMM 김경배 사장은 "금번 인도되는 LNG 연료추진선박은 HMM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R&D혁신' 조현범 회장, 獨서 기술력 입증

한국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 車전문지 테스트 '매우 뛰어남' 평가



한국타이어의 겨울용 고성능 SUV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

조현범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혁신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자동차 산업 중심지 독일을 사로잡았다.

한국타이어의 겨울용 고성능 SUV 타이어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진행한 테스트에서 '매우 뛰어남(Very Good)'을 획득하며, 글로벌 최상위 수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조현범 회장이 오랜기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를 바탕으로 완성된 결과다. 조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은 혁신적 기술력을 통해 비전과 목적, 시대 정신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며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실현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진행한 이번 테스트는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 11개의 겨울용 SUV 타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눈길과 젖은 노면, 마른 노면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제동력, 핸들링, 회전 저항, 소음 등을 평가했다.

테스트 결과 '윈터 아이셉트 예보3 X'는 겨울용 타이어 주행 성능과 안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눈길 핸들링과 제동력 성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수막현상 방지 성능에서 다른 타이어를 월등히 앞섰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빙판이 녹아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겨울용 타이어에는 우수한 배수 성능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한국타이어의 겨울용 고성능 승용차 타이어 제품인 '윈터 아이셉트 예보3'는 유럽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지 성능 테스트에서 꾸준히 호평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아우토 빌트 스포츠카'가 실시하는 겨울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1위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등 겨울용 타이어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한편 조현범 회장이 이끄는 한국타이어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 등에 기반하여 타이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 소비자를 겨냥한 첨단 기술력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독일 최고 권위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 독일 소재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티유비아슈드'가 시행하는 타이어 성능 테스트 결과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LG화학-美엑슨모빌 탄산리튬 공급 맞손

2030년부터 10년간 10만 톤 물량 확보
북미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 기대

LG화학이 미국에서 리튬 공급망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 경쟁력을 강화한다.

LG화학은 미국 세계 최대의 석유-에너지기업 엑슨모빌(ExxonMobil)과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엑슨모빌은 미국 텍사스 아칸소(Arkansas) 주 리튬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을 약 3시간 거리의 LG화학 테네시 공장으로부터 공급하고 LG화학은 양극재를 생산한다.

엑슨모빌은 지난 2023년 1만4700만 평 규모의 아칸소 염호를 인수해 같은 해 11월부터 직접리튬추출(DLE) 기술로 리튬 채굴을 시작했다. 염호에는 전기차 5000만대 분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탄산리튬 400만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LG화학은 직접리튬추출 기술 개발에 필요한 RO필터(Membrane) 등 다양한 소재로 엑슨모빌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번 협약으로 엑슨모빌로부터 탄산리튬을 2030년부터 최대 10년간 1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해 북미 내 리튬·양극재·배터리로 이어지는 안정



(왼쪽부터) 엑슨모빌 댄 홀튼 부사장,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화학

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LG화학 테네시 공장은 연간 6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으로서 미국 내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엑슨모빌 저탄소솔루션 댄 암만(Dan Ammann) 대표는 "양사간 협약을 통해 글로벌 리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리튬 산업을 주도하며, 탄소 감축,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 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의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술교류·합작투자 등 한-베트남, 中企 최대규모 협력

중기중앙회, '투자협력 포럼'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1992년 한국과 베트남간 국교 수교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 협력 모색에 나섰다.

한국 중소기업계 만형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베트남 중소기업협회(VINA SME)의 지역 조직간 협력 촉진을 위한 5건의 업무협약(MOU)을 비롯해 양국 민간 기업 및 단체들이 10건의 MOU를 동시에 체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교류, 인적교류, 합작투자 등 '민간외교'가 더욱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2023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무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간 교역액은 약 74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만 1만개가 훌쩍 넘는다.

양국 中企, 지역 단체·기업 15건 MOU 기술·인적교류 등 '민간외교' 확대

베트남은 한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핵심 동반자이자 아세안(ASEAN)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국가혁신센터(NIC) 호아락 캠퍼스에서 '신뢰와 협력: 한·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제'를 주제로 '2024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가 매년 연말께 해외에서 여는 백두포럼 일환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판 민 쩐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방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면담하면서 성사됐다.

우선 양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단체 지역 조직간 폭넓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상호간 네트



중기중앙회는 21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혁신센터 호아락 캠퍼스에서 '2024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 10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응우옌 화 빙 베트남 수석부총리, 응우옌 똌 똌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워크 구축 및 진출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다.

이날 ▲광주(중기중앙회 임경준 광주전남중기회장)-타이응우옌성(응우옌 수안 닷 타이응우옌성 SME 회장) ▲대구(중기중앙회 최우각 대구경북중기회장)-박닌성(응우옌 똌 똌 박닌성 SME 수석부회장) ▲부산(중기중앙회 허현도 부산중기회장)-짱닌성 하롱시(응우옌 탄 칸 하롱시 SME 회장) ▲대전(중기중앙회 조창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기회장)-흥연성(응우옌 티 탄 하 흥연성 SME 회장) ▲경기(중기중앙회 김식원 경기중기회장)-푸도성(응우옌 흥 선 푸도성 SME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기계, 플랜트, 의료기기, 제약, 식품, 소프트웨어 등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MOU를 체결, 투자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베트남 사립병원협회(의료기기 공급 및 AS 지원 등) ▲동구바이오제약-PHIL 인 터내셔널(의약품 인증 및 국가별 시판 허가권 취득·판매지원 등) ▲직스테크 톨로지-BK 펀드(AI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 및 CAD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 등이 대표적이다.

MOU 체결에 이어 진행된 포럼 본 행사 발표 세션에선 '베트남 직접투자

현황과 전망'(베트남 기획투자부), '고 숙련 노동자 훈련 및 공급전략'(노동부 훈사회부)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발표했다.

또 한국에선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트랩'(한국농기계협동조합 김신길 이사장), '스마트공장 발전 사례'(삼성전자 김동욱 ESG 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 발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金 "기술·투자 늘려 성장기회 마련" 응우옌 "디지털 접목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한국의 IBK기업은행이 '베트남 금융과 현지 한국기업 지원 방안'을, 베트남의 MB Bank(군사·산업은행)가 '한국기업을 위한 베트남 투자 기회 소개'를 주제로 각각 양국 기업들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 총리도 베트남이 실질적인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단순투자에서 벗어나 혁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 교류와 합작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의 IT 기술

등 혁신 기술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합작투자 등을 통해 양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응우옌 똌 똌 VINA SME 회장은 "베트남은 당시기장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관련한 교류, 협력, 공유, 투자를 우리는 적극 장려한다. 베트남은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경제협력을 원한다. 안정적인 경제·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밝혔다.

응우옌 화 빙 베트남 수석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140여 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이 투자 1위 나라다. 한국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870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했다. 양국의 무역 교역액은 앞으로 1000억 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2030년엔 1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베트남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있다. 이같은 기업들간 협력을 통해 양국 수교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노이(베트남)=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B

B tv 키즈 콘텐츠 확장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협업한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B tv 키즈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키즈 서비스 B tv ZEM(잼)에 AI 기술을 접목한 'AI로 만든 읽어주는 동화', 'AI 영어 더빙 동요' 콘텐츠를 선보인다.

'AI로 만든 읽어주는 동화'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제작됐다. 동화책 단행본을 AI가 주문형비디오(VOD)로 만든 콘텐츠다. 동화 속 배경, 등장인물, 대사, 감정 등 이미지와 내용을 학습하고 파인튜닝(Fine-tuning·미세 조정을 통한 성능 향상)한 AI 모델로 움직임을 생성해 생생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변환한다.

50페이지 내의 동화책 분량을 4분 남짓의 동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달부터 '파닥파닥 해바라기' '엄마 자판기' '여덟살 오지 마!' 등 총 12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AI 영어 더빙 동요'는 SK브로드밴드가 투자하고 콘텐츠 기업 크레이지 버드 스튜디오가 제작한 '뽕뽕이의 그림일기 동요'가 바탕이 됐다.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육성 및 사업협력 지원 프로그램에 추천된 허드슨에이아이도 제작에 참여했다.

영어 더빙 동요는 번역, 연기, 연출, 노래 편집, 믹스 등으로 인해 AI 제작 난이도가 최상위로 꼽힌다.

/이혜민 기자 hyem@

애경케미칼

신사업으로 체질 강화

애경케미칼이 업황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오는 2025년까지 TPC 양산 체계 구축하고 2026년 1월부터 생산에 본격 돌입해 아라미드 섬유산업 밸류체인 핵심 부분을 차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TPC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돌입,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뒤 울산공장에서 데모 플랜트를 가동했다. 기존 TPC 생산 방식은 '열'을 활용해 이산화황과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반면, 애경케미칼은 '광(光)공법'을 적용해 이산화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염화수소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TPC는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며 난연성까지 갖춘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주원료다. 전 세계적으로 아라미드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TPC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현정 기자

번역·요약·코딩까지 완벽 '가우스2'로 AI 생태계 확장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 사내 맞춤형 AI 솔루션 가우스2 공개 다중 데이터 처리, 기존 대비 성능 ↑

삼성전자는 21일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4(SDC24 Korea)'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발자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집중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 고유의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2'를 공개하고, 향상된 성능과 효율, 그리고 활용 방안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과 단계적 제품 적용으로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형 삼성리서치 부서장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삼성 가우스2'를 소개했다. 이 부서장은 "직원이 모르는 내용을 AI가 즉시 해결해 삼성의 생산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가우스2는 삼성전자 사내 맞춤형 생성형 AI 모델인데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가우스1 모델과 달리 여러가지 데이터 유형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2세대 버전이다.

이 부서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일반 웹브라우저에서 문서 번역, 내용 요약 등을 즉시 처리하는 기능을 직접 시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전선-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산업 선도

태안해상풍력 프로젝트 우협 선정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LS마린솔루션과 LS전선이 충남 태안해상풍력의 해저케이블 공급 우협상대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태안해상풍력은 싱가포르 기반의 재생에너지 기업 뱌나에너지(Vena Energy)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 해상에 약 500MW(메가와트) 규모로 조성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로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을, LS마린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축적된 글로벌 경험과 국내 최장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해상



(왼쪽부터) 구분규 LS전선·LS마린솔루션 대표, 정광진 (주)태안풍력발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풍력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LS마린솔루션과 협력하여 완벽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글로벌 시장 선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26년까지 총 7~8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LS전선은 이에 발맞춰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사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서현정 기자 hyeon@



(tok tok)



©후카후카스튜디오의 스마트톡 시리즈인 톡톡은 모두 수작업으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가장자리에 등글림 작업을 하여 사용 시 날카로움이나 거슬림 없이
 조약돌처럼 매끈한 감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작 방법으로 거슬림을 없애고 입체감은 살린
 후카후카스튜디오만의 특별한 톡톡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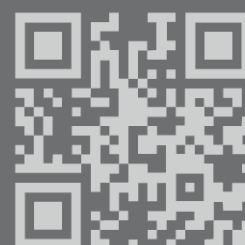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새내기株 ‘따블’에도… 더본코리아 급락에 IPO 시장 ‘공공’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 23.05% ↓
새내기株 등락률 평균 -26.38%
위츠, IPO 시장 한파 속 ‘따블’ 기록

국내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기업공개(IPO)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상장한 ‘위츠’의 흥행으로 3개월 만에 따블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감이 집중됐던 더본코리아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IPO 시장 대어로 등장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4.12% 하락하며 신저가를 경신했다. 상장 이후 23.05% 폭락하면서 4만원선이 깨지는 등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는 증



ChatGPT에 의해 생성된 IPO 시장의 한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거금 약 11조8237억원을 모으면서 경쟁률 772.8대 1을 기록했다. 상장 당일 있었던 지난 6일 공모가 3만4000원 대비 51.2% 상승한 5만1400원에 마감하면서 흥행으로 평가됐으나, 기대감이 바로 꺾인 모습이다.

20일 기준 9월 들어 상장 새내기주들의 공모가 대비 주가 등락률 평균은 -26.38%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오른 ‘위츠’를 제외하면 -32.88%로 떨어진다. 위츠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으로 공모주

시장의 한파가 지속되는 와중에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장중 한때는 272.66%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4배로 뛰는 ‘따따블’ 가능성도 기대됐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여나갔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들은 공모 당일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IPO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상장 당일 주가 평균은 -6.6%에 그쳤다. 더본코리아의 흥행으로 IPO 시장의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이후 상장한 토모큐브(-23.4%), 에어레인(-28.5%), 노머스(-28.8%), 닷밀(-26.8%) 등이 상장 첫날부터 줄줄이 폭락했으며, 현재까지 주가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위츠를 제외한 엠오티(-22%), 에스캡(-29.1%), 사이냅소프트(-24.5%) 등이 모두 20%

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창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공모가 대비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IPO 시장의 흥행 여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수반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IPO 시장은 전체 상장 기업 중 80%가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 했음에도, 주가 하락 이어지며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형 IPO 딜이었던 케이뱅크가 상장을 철회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어 이 연구원은 “더본코리아 마저 흥행에 실패할 경우 한동안 국내 IPO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스크 확대에 대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보다 기업 실적개선 우선돼야”

셀트리온, 삼성전자 자사주매입 밸리
자사주 취득결정, 단기 주가 반등
이익 모멘텀 약화 대한 전환 등 필요

국내 상장사들이 떨어지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밸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수시로 이뤄지는 임원들의 회사 자사주 매입부터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까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근본적인 실적 개선과 기술 향상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날 자사주 58만 3431주를 22일부터 3개월간 장내에서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이날 장 시작 전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셀트리온의 주가는 종가 기준 17만37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34%(2300원) 상승했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올해 239만4031주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에 투입한 총 재원은 약 43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올해 1월초 20만원대 회복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회사는 최근 약화되는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주가의 과도



셀트리온 본사

한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수시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중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곳도 나왔다. 지난 11일 한국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신약 집콕트라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아 영업가치를 하향했다며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22만원으로 12% 내리기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 15일 폐장 후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날은 전 거래일 대비 1.99%(1100원) 오른 5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상승세가 이어진 건 4거래일 중 이틀뿐이었다. 특히 외국인인 18일부터 20일까지 삼성전자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회사나 회사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삼성전자 본사

수는 줄고 주당 순이익(EPS)이 늘어 주가 부양 효과를 불러온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 개선과 본업 경쟁력 향상이 주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수급 트리거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라며 “인공지능(AI) 경쟁력 열위, 이익 모멘텀 약화에 대한 전환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단기 주가 반등 및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가 확인되기 전까지 상방이 제한적인 트레이딩 구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5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 경쟁력 회복에 대한 실마리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도펀드 설정액, 한 달간 229억 줄어

수익률 5.25% ↓… 주요펀드 比 저조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인도증시가 한 달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인도펀드’ 설정액이 200억원 넘게 줄었다.

21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인도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지난 1개월간 229억원 줄었다. 이 기

간 수익률은 5.25% 떨어졌다. 중국(2.89%), 북미(1.87%), 유럽(-1.41%) 등 주요 펀드에 비하면 저조한 성과다.

상품별로는 ‘TIGER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와 ‘KODEX 인도 Nifty50 레버리지(합성)’의 수익률이 각각 -10.55%, -9.40%로 부진했다. ‘KODEX 인도Nifty50’과 ‘TIGER 인도니프티50’의 최근 1개월 수익률도 -4.58%, -4.51%를 기록했다.

인도 증시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도 대표 주가지수 니프티50은 한 달 동안 5%가량 하락했다. 기업 실적 약화가 지속된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확대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내수 시장 잠재력과 인구 증가 등 구조적 강점이 장기적으로 시장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고객 수익 11.4兆 ↑”

테슬라·엔비디아 등 수익 증가에 역할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2일 기준 연초 대비 자사의 해외주식 고객 수익이 11조4000억원 순증해, 총 잔고 36조50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고객들의 글로벌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성향, 자산배분 전략,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혁신기업 주가 상승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고객들의 수익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166%의 수익률로 고객 평가이익 약 3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테슬라는 70%의 수익률로 약 2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더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42%, 애플 60%, 브로드컴 155%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 5개

종목 모두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밈(MEME) 주식’과는 차별화된 자산배분 효과를 보여주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AI를 접목한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 및 영업점에서 고객 수익률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매일 개최되는 고객 자산배분위원회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 AI 기반 기업 분석 리포트와 초개인화된 로보어드바이저 및 웰스텍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수익률 대회를 통해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美 장기국채 ETF’ 순자산액 2兆

4종 합산… 연금계좌 자금유입 영향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장기국채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4종 합산 순자산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장기국채 투자 4종 상품의 합산 순자산액은 지난 20일 기준 2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상품으로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순자산액이 1조7546억원으로 국내 최대 미국장기채 ETF 자리를 유지했다. 뒤이어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ETF가 1095억원,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가 866억원,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가 628억원을 기록했다.

4종 중 올해 순자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품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였다. 해당 상품은 작년 말

6327억원이었던 순자산액이 연초 이후 1조1122억원 증가하며 올해에만 몸집을 175.79% 불렀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의 순자산액은 251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3월 상장한 달러노출형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와 엔화노출형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ETF 또한 상장 당일 순자산액 대비 각각 548억원, 1015억원이 증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에 따르면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 순자산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과 연금계좌에서의 자금유입 덕분으로 분석된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올해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에 대한 개인순매수액은 5381억원이며, 연금계좌유입액은 1조4296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민관 손잡고 해양기술 혁신 이끈다 '자율운항선박' 글로벌 시장 도전

산업부, 'SHIFT-Auto'호 출항식
삼성중, 설계 등 자율운항 기술 적용
규제샌드박스 통해 자율운항 검증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 자율운항 실증선박이 잇따라 출항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쉬프트-오토(SHIFT-Auto)호' 출항식이 열렸다.

이번에 출항하는 쉬프트-오토호는 설계부터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을 적용한 전장 12m 규모 선박으로,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1월3일)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다.

이를 통해 쉬프트-오토호는 타 선박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1일 거제에서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 호'

앞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이달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

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출항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표준화·인증으로 우주산업 경쟁력 높인다

국표원·방사청·우주청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21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 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주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로 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37개 사업장 차별 적발... 2억 규모 시정명령

98개 사업장 차별근절 기획 감독

A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이같은 차별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

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아울러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산 과일·신품종, 직접 만나보세요"

농식품부,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함께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1~23일 사흘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행사다. 국산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유통 환경 변화를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 방안의 기회를 갖는 과수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향긋한 과일에 이끌림, 건강한 일상을 반올림'을 표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뿌듯함을 담아 준비한 다채로운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제 전시, 홍보·판매, 체험 등이 운영된다. 주제 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대표과일관, 주요 7대 과종의 기능성 및 효능을 소개하는 과일 기능성관, 국내 육성 신품종을 소개·홍보하는 신품종관으로 구성된다.

홍보·판매관에서는 시식 코너를 통해 지역별 대표 과일과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신품종, 대표과일 수상작 등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 행사 기간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풍성한 과일장터도 운영된다.

체험관에서는 과일 타르트 만들기, 과일 낚시와 스탬프투어 등 일반 소비자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1일 개막식에서는 2024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과일·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과일의 외관, 당도, 산도, 경도 등을 심사해 11종류 과일의 분야별 대표 과일을 선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올해 가루쌀 신제품 우수업체 선정

최우수상에 그린하우스 등 3곳 시상

'올해의 가루쌀 신제품' 수상 업체들이 가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 푸드위크 행사장에서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사업 우수업체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상 3곳과 금상, 은상, 동상 업체를 선정·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에는 전국 30개 제과업체가 참가했다. 지난 5월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를 통해 120여 종의 신메뉴를 개발하고, 6월부터 신메뉴를 포함한 500여 종의 가루쌀 베이커리를 판매하고 있다.

aT와 대한제과회회는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6~10월 기간 가루쌀 빵지순례 기간 중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가루쌀 소비촉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 중 최우수상 3개 업체를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그린하우스(경남 창원) ▲독일베이커리(충남 당진) ▲그라츠 과자점(서울 중구) 3곳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푸드위크 행사장에서 열린 가루쌀 제품 전시회. /뉴시스

선정됐다. 이들 3곳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남 창원의 그린하우스는 전체 매장 5곳에 복분자쌀롤, 썬쌀빵, 무가당쌀빵 등 가루쌀을 활용한 건강한 쌀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판매했다.

충남 당진의 독일베이커리는 매장에서 유명메뉴인 파베기를 국산 가루쌀로 전량 대체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확산에 방역미흡 농가, 강력제재 예정

농식품부, 위반 시 살처분 보상 축소

방역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일부 가금농장에서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외 농가 100여 곳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전염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AI 관련 상황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AI가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이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서울시, 舊 국립보건원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강북권 개발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4.8만㎡ 대규모 공공 유희부지
상암DMC 등 인접... 창조산업 지원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대상으로 구(舊)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균형발전형사전협상은강남북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시가 마련한 제도로, 강북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희부지로,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서울시가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과 홍익대학교와 같은 유수의 대학이 5km 근거리에 밀집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유인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균형발전형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여준다.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공공기여율을 중전 60%에서 30%까지 낮춰 최대 50%를 완화한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매각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33년 창조타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20일 세종대에서 진행된 ‘차량 내 운전자 감성 서비스를 위한 복합감정인지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및 실증’ 1차년도 Kick-off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차량 내 감정인식 AI 개발 착수

산업부 지원 과제 선정... Kick-off 미팅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운전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인지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술을 개발한다.

세종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과제에 선정돼 차량 내 감정 인식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지난 20일 Kick-off 미팅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차량 내 운전자 감성 서비스를 위한 복합감정인지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진행된다.

핵심은 복합 감정 인지 모델을 개발해 한국형 감정 인식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운전자의 감정 상태에 맞춘 안전운전 지원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운전자의 실시간 감정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용 시스템 온 칩(SoC)을 개발하고, 공동연구기관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Kick-off 회의에서는 세종대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모트렉스, 연세대 산학협력단, 실버칩스, 수퍼게이트 등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이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현진 기자

정근식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재정 확보돼야”

(서울시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농촌유학,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우려
청년교사·공무원 근무 지속 도와야



“농촌유학”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이라는 슬로건으로 4년째 농촌유학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 8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던 정 교육감은 이날, ‘농촌유학’ 정책을 확산해 지역 양극화와의 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00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한달여 만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한 자리에 모였다.

정 교육감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 및 사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 지원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우수한 청년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교육감들은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교원 정원 배정을 교육청 주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이현진 기자 lhj@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 및 사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 지원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우수한 청년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교육감들은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교원 정원 배정을 교육청 주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교육청, ‘마약예방 뮤지컬’ 제작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선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종로구 창신아트홀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대상 신종 마약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으로 고3 학생들

을 위한 마약 예방 창작 뮤지컬을 제작했다.

공연은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배우 박해미 씨가 예술감독을, 배우 황성재 씨가 총괄 감독을 맡았다.

뮤지컬 공연은 오전, 오후 2회로 나눠 약 60분 동안 진행된다. 희망학교 중 선정된 14개교의 고등학교 학생 2800여 명이 직접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평택시, 내년도 예산안 2조4325억 편성

올해보다 1389억 늘어... 6.1% ↑

평택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2조 432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389억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한 고 효과적 재정부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5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8685억원(42.8%) ▲교통 및 물류 1859억원(9.2%) ▲환경 1597억원(7.8%) ▲문화 및 관광 1316억원(6.5%) ▲농림해양수산 1165억원(5.7%) ▲국토 및 지역개발 1006억원(4.9%) ▲일반공공행정 826억원(4.1%) ▲교육 540억원(2.6%) ▲보건 402억원(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1억원(1.5%) ▲공공질서 및 안전 198억원(0.9%) 순으로 편성됐다.

한편,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시도 사용 가능

오는 30일부터 확대 시행
3호선 44개 모든 역사서 사용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지역을 고양시와 과천시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하는 시민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충전해 쓰면 된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실물카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카드를 산 뒤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한 다음 사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5층 건물서 화장품·메이크업 체험… ‘K-뷰티 집약체’ 오픈”

‘올리브영N 성수’ 영업 시작
1층~3층 판매, 4층~5층 VIP공간
외국인 겨냥 ‘12개 전문관’ 꾸며
인천공항~명동 올영 익스프레스
K-뷰티·K-쇼핑 위한 마중물 역할



‘올리브영N 성수’ 매장 2층에서는 컬러 메이크를 직접 체험 가능하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뷰티 리테일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
CJ올리브영은 서울 성수에 마련한 자사 최대 규모의 매장인 ‘올리브영N(엔) 성수’ 영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5개 층이 12개 전문관으로 꾸며졌다. 1층부터 3층까지는 판매 공간으로 운영되고 4층과 5층은 입점 브랜드와 올리브영 VIP 회원이 이용한다.
올리브영이 이번 올리브영N 성수를 통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K뷰티 랜드마크’가 될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수 상권은 최근 뷰티·패션·식음료 관련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성지로 꼽힌다. ‘현지인처럼 여행하기’가 국내외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되면서 서울 성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성수 지역 내 올리브영 매장의 매출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약 90% 늘었고,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은 300% 가까이 급증했다.
올리브영은 일찍이 방한 외국인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쳐 왔다. 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전국 매장에 휴대용 번역기를 도입했다.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고객들에게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쇼핑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장 구성원을 대상으로는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 공항에서 서울 명동까지 편도로 운행하는 무료 버스인 올영 익스프레스의 경우, K뷰티와 K쇼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올리브영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올영 익스프레스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국내 관광 상권 전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올리브영은 올리브영N(엔) 성수 매장에 글로벌 한류 열풍을 일으킨 ‘K팝’을 적극 접목해 업계 주목을 받는다. 올리브영N 성수 전용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는 ‘더 코너 굿즈숍’과 K팝 아티스트의 팝업 행사를 진행하는 K팝 특화 구역 ‘K팝 나무’가 설치됐다.
올리브영은 향후 K뷰티 과제에 대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방한 외국인들의 쇼핑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시키고 해외에서는 온라인몰인 ‘올리브영 글로벌’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K뷰티 업계 상생을 위한 협력사 소통 공간과 입점 브랜드들을 위한 ‘커넥트 스튜디오’가 대표적이다. 올리브영이 갖춘 뷰티 전문성에 중점을 둔 체험형 시스템으로는 홈케어 레슨과 스킵수준의 전문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스킨핏 스튜디오’, ‘메이크업 스튜디오’, ‘부위별 메이크업을 배울 수 있는 ‘터치업 바’가 있다.
한편, 올리브영은 올해도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은 3조 52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올리브영이 끊임 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국내 중소 브랜드들과 동반성장해 온 것처럼 ‘글로벌 K뷰티 플랫폼’으로 향하는 여정도 뷰티부터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K브랜드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제프리스 런던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이 메인 세션 무대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영 헬스케어 콘퍼런스서 2년 연속 메인세션 발표

SK바이오팜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제프리스 런던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메인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행사인 이 콘퍼런스 메인 세션에서 2년 연속 발표를 진행한 기업은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주요 성과와 ‘글로벌 빅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이동훈 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는 지난 2023년 미국 항경련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세노바메이트 적응기 첫 4주 동안 43%의 환자가 ‘완전발작소실’을 경험하는 등 초기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직접판매 매출은 올해 2분기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7.7% 커져 1133억원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9.8%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토종 비만신약 출시 앞당긴다… 1000억 목표

상용화 시점 2026년 하반기 재설정
체중감소·혈당조절 효과 등 갖추고
‘랩스커버리’ 위장관계 부작용 개선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 회사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한 GLP-1 비만 신약의 상용화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통해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2027년에서 2026년 하반기로 재설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완료된 ‘에페글레나타이드’ 연구개발은 과제 중 및 1단계 비만 환자에 최적화된 치

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중 감소 및 혈당 조절 효과를 갖췄고,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방식을 통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기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한계점은 위장관계 이상 반응 부작용이다. 이 약물들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돕지만,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미쳐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약물 사용 초기나 용량 증가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한

경우,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계열 약물로서 심혈관 및 신장보호 효능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4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글로벌 심혈관계 안정성 연구(CVOT)에서 주요 심혈관계 및 신장 질환 사건 발생 위험도를 개선하는 등 약물의 혁신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우선 국내에서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리는 대형 품목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최

첨단 바이오의약품 전용 공장 ‘평택 스마트플랜트’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세계적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약품은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국내 비만 환자들의 약물 접근성과 지속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후속파이프라인으로 비만 치료 삼중작용제 후보물질 ‘HM15275’를 확보했다. 이 물질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근 손실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25% 이상 체중 감량이 가능한 점이 핵심이다.
/이청하 기자

하이트진로 ‘테라’ 누적판매 50.8억병 돌파

1초당 28병씩 팔린 셈
하이트진로는 ‘테라’ 브랜드의 누적 판매가 50억8000만 병(전날 기준)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초당 28병씩 판매(330ml 기준)된 속도이며, 총 16억7000만 개가 판매되어 올림픽 규격 수명장 약 671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성인(20세 이상, 4344만명 기준) 1인당 약 117병씩 마신 셈이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 맥주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1~10월 기준)하며 대세감을 이어갔고,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7월에 출시된 ‘테라 라이트’의 활약도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테라 라이트 출시 이후 맥주 성수기인 7~8월 테라 브랜드의 가정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300여개 브랜드 참여 ‘블랙위크’

22일~24일까지 전국 15곳서 행사
현대백화점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백화점과 커넥트현대 부산에서 다양한 쇼핑 혜택을 담은 할인 행사 ‘블랙위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리빙·스포츠 등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포인트 프로모션 ▲특가 상품전 ▲점포별 대형 할인 행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행사 기간 다양한 포인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전 점 식품관에서는 구매 금액대별 5% 증정 프

로모션을 진행해 현대식품관 슈퍼에서 10만·20만·40만원 이상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플러스포인트를 5000·1만·2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벤트를 진행해 현대백화점카드 1만원 이상 구매한 뒤 현대백화점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H포인트를 지급해 준다. 지급 금액은 1등 5만원(50명), 2등 3만원(150명), 3등 1만원(300명)이다.
부문별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 자켓, 맨투맨 등 패션 초특가 아이템을 선정해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양식품 친환경 패키징. 삼양식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등 패키지 재활용 소재로 리뉴얼

삼양식품은 라면 번들(볶음)용 패키지를 한층 더 환경 친화적으로 리뉴얼했다고 21일 밝혔다.
리뉴얼된 번들용 패키지는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적용하고, 기존과 달리 뒷면과 아랫면, 뒷면을 투명하게 만들어 잉크 사용량을 60% 절감했다.
이달 초 불닭볶음면 시리즈와 삼양라면 번들 상품에 우선 적용됐고, 추후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리뉴얼은 친환경 패키지를 개선하고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금감원, 9년간 겨울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훈훈'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권 참여 연탄 12.5만장, 난방유 1.4만 / 독거노인·영세가정에 직접배달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을 찾아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권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에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행사명을 '사랑의 온기 나눔'으로 변경하고 기부 품목을 연탄, 난방유, 식료품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번 나눔 활동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금감원·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21일 열린 '사랑의 온기 나눔' 행사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카카오펙, 케이뱅크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과 금융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2만5200장과 난방유 1만4000리터 등을 기부했다.

이 중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리터 등을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거노인·영세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이날 연탄 나눔 활동에 참여한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권이 함께 실천한 작은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금감원도 금융권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롯데재단, 필리핀 4개 대학에 장학금

롯데재단이 '2024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필리핀 팡가시안 주내 4개 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가운데)과 라론 기코 팡가시안 주지사(왼쪽 옆)이 필리핀 4개 대학 관계자, 장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재단



SK케미칼 '치매 예방교실' 개최

SK케미칼이 서울시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개최했다. 치매예방 교실에 참여한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이 치매 예방 강연을 듣고 있다. /SK케미칼



KT&G복지재단, 복지기관에 차량 전달

KT&G복지재단이 지역 사회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경차 105대를 지원하는 '2024 사회복지기관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지난 20일 임선준 KT&G복지재단 사무처장(왼쪽)이 최용석 양주시 희망노인복지관 관장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T&G



동아제약, 품질혁신대회서 '대통령상'

동아제약은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에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은상을 받았다. 강보성 동아제약 생산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동아제약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제약



장인화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왼쪽)이 2024 첨단보조기구전달식에서 로봇 의수를 살펴보고 있다.

상이국가유공자 등에 첨단보조기구 전달

포스코1%나눔재단 하반기 마비 등 23명에 지급

포스코1%나눔재단은 상이(傷痍)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 군인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명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 2008년 군복무 중 낙상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 추연희씨, 2015년 소방업무 중 고압전선에 감전돼 왼쪽 손을 잃은 노석훈 소방위가 각각 로봇 의족과 로봇 의수를 받았다.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장애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 군인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지급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6.

25 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해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56명에게 로봇 의수·의족, 다기능 휠체어, 인공 지능 보청기 등을 전달했다.

재단은 서울·부산·대구·대전 4곳의 보훈병원에도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 한국 기업 엔젤로보틱스가 개발한 웨어러블 보행재활치료 로봇이다.

장인화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은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감사와 정성으로 마련한 첨단보조기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가유공자, 장인화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마트·슈퍼, 친환경 꽃게자망 기부

군산 장자도 어촌계에 550여개 전달

롯데마트·슈퍼가 지난 20일전라북도 군산시 장자도 지역 어촌계에 친환경 생분해성 꽃게 자망 550여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롯데마트·슈퍼가 진행하고 있는 ESG 캠페인 '바다 사랑(애)진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10월 수산물 프로모션을 진행, 행사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가 어촌의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부되는 고객 참여형 기부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이 조



임대일 장자도 어촌계장(왼쪽)과 진주태 롯데마트·슈퍼 준법지원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

성됐고, 기부금 전액으로 친환경 생분해성 꽃게 자망을 구매해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에너지머티, 국가품질경영 대통령상

유성한 공장장, 동박 생산성 향상 공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유성한 총괄 공장장이 동박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유 총괄공장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

품질경영대회는 제조 및 서비스 산업계에서 품질경영을 통한 혁신활동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산업발전과 국가 위상 강화를 이끈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표창하는 행사다.

유 총괄공장장은 지난 1991년 입사 이래 과거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동박 산업을 국산화하는 과정 속에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성신여대, CPU 대회서 '산업부장관상'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미래융합기술공학과·융합보안공학과 연구팀이 지난 18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4 CPU(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Campus Patent Universiade, 이하 CPU) 대회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CPU는 대학생들의 특허 데이터 활용 능력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공모전이다. 올해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



2024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일구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성신여대

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후원하며, 발명 사업과 부문과 특허전략수립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9 | 해질 / 17:17

11월 22일 (금) 음력 : 10월 22일

수도권 날씨 3~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6/9, 연천 -1/10, 동두천 1/10, 가평 0/11, 파주 -1/10, 서울 3/10, 양평 2/10, 인천 4/9, 수원 3/9, 용인 3/9, 평택 2/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부음

▲이근신(향년 93세)씨 별세, 권오정(前 삼성서울병원장)씨 모친상= 2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장지 진달래메모리얼파크. 02-3410-3151

▲서강명씨 별세, 구석희 장희 구희 진희 석순씨 모친상, 조해욱 최길순 정명옥씨 시모상, 김경민씨 장모상, 구자웅(금주석유화학 대외협력팀장) 조모상= 20일 오후, 영동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9시 30분. 043-743-4499.

▲김정아씨 별세, 정철희(홍주미터 이사)·철민(기술신용보증기금 부장)·철진(아이스퀘어 호텔 대표)·철남(한창중기 대표)·철경(우리는행복보실 팀장)씨 모친상= 21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301호실(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96), 발인 23일 오전, 장지 경남 남해군 선영. 051-305-4000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으니까

시대를 넘어 보험이 가야 할 길



“AGI 완전한 실현, 20년 가량 걸려... 기술·윤리 병행돼야”

기조강연

유성준 AI 융합교수연구원장

현 AI 기술, ANII 수준으로 규정해야 강화학습 등으로 기술적 한계 극복

“범용인공지능(AGI)의 완전한 실현은 20년 가량 걸리고, ‘AGI의 기술과 윤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AI 발전은 불가능하다.’

유성준 세종대학교 AI 융합교수연구원장은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 교수는 “1959년 로젠블랫이 ‘퍼셉트론(Perceptron)’을 발표해 신경망 연구의 기반을 닦았다”며 “당시 사회는 사람처럼 말하고 듣는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A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I 연구가 침체에 빠졌던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1970년대에 첫번째 AI 침체가 찾아온 것은 초기 연구 성과가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1980~9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과 날리지 엔지니어링이 재조명되며 다시 부활했지만, 결국 기술적 한

계를 넘어서지 못하며 두번째 침체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거대언어모델(LLM) 기술 혁신으로 인해 AI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LLM의 추론 능력은 기술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인과관계 추론 부족 ▲긴 문맥

이해의 한계 ▲환각(hallucination)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AGI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4년 ICLR 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37%의 전문가들은 AGI의 최종 단계가 도달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AI 기술을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약용인공지능(ANII)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과 동등하거나 초월하는 일반지능을 구현하려면 기술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AGI는 인간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능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추론, 메타인지, 메모리 같은 고도화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학습 ▲월드 모델 시뮬레이션 ▲메타인지 기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구자들은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AGI 실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생성하는 답변이나 결과물이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편향을 방지하고, AI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 교수는 AI 연구를 위한 한국의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보유한 NVIDIA의 고성능 GPU는 약 2000개 수준이지만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범용 인공지능과 공존 고민해야 하는 시대”

축사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AI 중심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AGI 산업 방향 모색·비전 제시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수성구를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2024 뉴 테크놀로지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이장규 메트로 미디어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유성준 세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 원장님, 김덕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님, 김현배 디파인 대표님, 하은석 큐빅CTO님, 이근우 법무법인 하우 AI 센터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 사회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메트로 미디어에서 AGI(인공일반지능)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포럼이 AGI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AI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 AI 포럼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AI 관련 지능 정책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양성준 기자 ysw@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급변하는 대외환경, AI 기술선도가 해답”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경제위기, 뉴테크로 역전시켜야 AGI 미래 생태계, 韓 주인공 되길 바라

안녕하십니까. 메트로미디어 대표 이장규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가 뺨뺨 터지고 인터넷 접속 속도가 빠르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IT 강국의 자부심이 절로 느껴지죠.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그랬을까요? 1997년 IMF가 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의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중후장대 위주의 한국경제가 IMF라는 강편지를 맞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썼나요?

IT, 디지털 등 뉴테크에 사활을 걸고 집중 투자해, 환골탈태 IT강국으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결실은 IT산업 뿐만 아니라, IT기술을 적용한 기존 전통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타 업종의 기업들도 대거 급반등, 회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위험하고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엄청난 기회도 줍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현재를 깨부술 파괴적 창조의 탄생, 종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비상(飛越)의 기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를 다시 역전시킬 때입니다. 4반세기 전처럼 뉴테크에 운명을 걸 시간입니다. 메트로신문이 뉴테크놀로지포럼을 주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경쟁력 약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부담, 지나친 규제 등 국내는 물론, 트럼프 등장에 따른 대외환경 급변 등 안팎으로 닥치는 파고가 거칠고 위협적입니다. 이 파고를 헤쳐나갈 길은 AI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선도국이 되는 방법 뿐입니다. 역대급 과감한 투자, 각종 규제의 완전한 철폐, 인력 양성, 보상체계의 전면개편 이런 짝꿍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AGI가 재편할 미래 생태계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거듭날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오늘 포럼이 나름 의미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차현정 기자 hyeon@

“SW·AI 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할 핵심요소”

축사

조풍연 한국 SW·ICT 회장

시대 맞는 백만 디지털 인재 양성 연구개발 예산 40조 이상 확대 제안

반갑습니다. 메트로 미디어 독자 여러분.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입니다.

이장규 메트로 미디어 대표님께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연사님들과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IMF 외환위기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우리 경제는 복잡한 도전에 직면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이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해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세수 부족, 신성장 산업의 시장 정체, 인구 감소,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인류를 뛰어넘는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AI와 SW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이

끌어갈 새로운 엔진입니다. 이제 SW·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1등 국가를 목표로 육성해야 합니다. SW·AI 기술은 모든 산업 분야와 융합돼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SW·AI 시대에 맞는 산업전반에 새로운 리더십과 디지털 시수를 늘려 백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지원해야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 스타트업 활성화로 혁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민 기자 hyem@

“생성형 AI, 빠르게 성장... 新시장 신속 진입 고려해야”

기조강연

김득중 NIPA 부원장

AI 발전·이용자 확장 속도 빨라져 기업 역량 키워 기술격차 상쇄해야

“가장 많이 활용한 생성형 AI 앱을 조사했더니, 단 4개월 만에 40%가 새로운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이 20일 (메트로경제)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날 김 부원장은 '생성형 AI 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은 현 생성형 AI 생태계에 관한 개괄과 기업이 생성형 AI 시대를 맞은 현재 목표할 점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김 부원장은 최근 AI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거와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른 점으로 ▲발전속도 ▲이용자 두 가지를 들었다. 지난 2020년 이전 학계는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조건에 초월해 연산과 학습이 가능한 범용인공지능(AGI)이 출현하기까지 약 80년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챗GPT가 등장한 2021년 11월, AGI 출현 예상 시기는 20년 후 수준까지 당

겨졌고 지난 7월 오픈AI는 오는 10년 내 출현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과거와 현재 또 달라진 점은 바로 사용자들의 특성”이라며 “과거 AI, 딥러닝, 머신러닝 등은 모두 전문가의 일로 일반인이 활용하는 능력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일반인까지도 모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

다”고 짚었다.

이어 “점차 빨라지는 AI 발전 속도와 이용자 확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AI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형 벤처투자사 앤더슨호로위츠의 조사결과를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앤더슨 호로위츠가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월별 생성형 AI 웹/앱 순위를 보면 단기간에 급속히 새로운 앱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2024년 1월 기준, 4개월 전인 2023년 9월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50위 중 40%가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생성형 AI와 관련한 사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은 생성형 AI 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AI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생성형 AI 경영 패러다임을

셋팅하고 오픈소스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는 기술을 억함으로써 자본과 기술 격차가 심화 되는 상황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 성장 상황을 살펴 신규 시장으로 신속한 진입도 고려해야 한다.

그는 핵심역량의 변화 또한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생성형 AI 조합·활용 역량과 프롭트 엔지니어링 역량, 빠른 최신 AI기술 및 트렌드 습득 역량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여전히 자기 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고객 이해, 비즈니스도메인 지식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테스트 코드 작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 산업 표준에 대한 지식 등은 대체 가능한 역량으로 덜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시장에서 주목 받는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소개도 진행했다. 김 부원장은 ▲온디바이스AI ▲AI 에이전트 ▲AI Things 등을 꼽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2~3년 내 AI 경험하는 공간 컴퓨팅 시대 열릴 것”

강연

김현배 딥파인 대표

확장현실, 디지털-현실 융합해 영항 생성형 AI, XR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확장현실(XR) 기술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새로운 공간 컴퓨팅 시대를 열 것입니다”

김현배 딥파인 대표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XR 공간 컴퓨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차세대 미래 기술 XR 공간 컴퓨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대표는 XR 기술이 산업 전반에



김현배 딥파인 대표가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컴퓨팅의 발전사를 돌아보며 “XR 기술은 디지털과 현실을 융합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파인의 핵심 솔루션인 ‘디에스씨(DSC)’와 ‘디에이오(DAO)’를 통해 XR 기술의 다양한 산

업군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DSC는 전문 장비 없이도 누구나 모바일 기기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디지털 공간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박물관에서는 유물이나 전시품을 3D로 스캔·복원하거나 역사 유적지에서는 증강현실(AR) 기반 인터랙티브 투어를 제공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XR 콘텐츠 제작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텍스트나 이미지 입력만으로 고품질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누구나 AI 환경을 경험하는 공간 컴퓨팅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XR 기술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이혜민 기자 hyem@



하현석 큐빅 CTO가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합성데이터로 저작권 등 법적제약 극복”

강연

하현석 큐빅 CTO

합성데이터, AI 시대 ‘합성 다이아몬드’ 데이터 수집비용 절감·편향성 해결

“합성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등장한 후 가격 접근성도 변했지만 환경과 윤리적 문제들이 함께 해결됐습니다. AI시대, 합성 데이터는 바로 합성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현석 큐빅 CTO가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초현실 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에 참석해 'AI 혁신을 위한 미래데이터: 합성데이터 소개' 강연을 진행했다.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지만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가상 데이터를 뜻한다.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 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편향성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AI 모델 학습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 CTO는 “AI는 방대한 데이터 셋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는 다양한 제약이 있다”며

“현재 오픈AI를 비롯해 주요 AI 기업들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되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가상 데이터인 합성데이터”라며 “가트너는 2030년까지 합성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보다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성데이터 또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 CTO에 따르면 원본 데이터를 너무 충실하게 모방하면, 합성데이터만으로도 원본 데이터의 민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 정보 보호(Differential Privacy) 기술이 도입됐는데, 이는 데이터 학습 시 노이즈를 추가해 원본 데이터의 샘플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이 기술을 고객 데이터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허 CTO는 “미래의 데이터 산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성 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다이아몬드와 데이터가 합성 기술로 재탄생하며, 우리의 삶과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준비를 마쳤다”고 마무리 지었다. /김서현 기자

“AI,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사람과 동등대우는 안 돼”

강연

이근우 변호사

장점 분명하지만 부작용 등 논의의 필요 특히 노동시장 관련 대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AI와 인간의 정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활용의 장점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부작용과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I센터장이 20일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 변호사는 ‘AI와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 활용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AI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으로 AI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문제를 꼽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안정적으로 직업을 이루고 있던 직종들이 통째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예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산형 AI가 예술 작품을 학습에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 집단에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직업 재설계와 교육 훈련 체계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각자도생의 해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경제연구소와 기업에서 2025년 경제·산업전망 분석이 한창이다. 내년 경제 기상은 '흐림'을 예상하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는 한마디로 암울하다.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 긴장하고 있다. 먼저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내수(소비+투자) 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 소상공인, 개인 모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내년 우리 사회는 '저성장 지속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각자도생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한 2.0%로 제시했다. 수출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025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저성장 지속을 예상했다. 그 이유로 저출생, 고령화, 높은 수출 의존도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또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부진도 이유로 들었다.

하나금융은 2025년 우리 경제의 키워드로 '우로보로스(Uroboros)의 딜레마'를 꺼냈다. 우로보로스는 고대 신화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을 말한다. 자기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도 모른채,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현실과 대자부된다. 정쟁이 끊이지 않는 정치는 내년에도 희망이 크지 않다. 경제도 희망적이지 않다. 저성장에 따른 양극화가 한국의 경제를 짓누를 것이 분명하다. 정치 양극화에 이어 소득 등 경제력 격차가 벌어져 빈부격차가 심해질 전망이다.

양극화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수익성 약화와 기술력 미비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소상공인도 되는 집만 되는 구도가 예상된다. 다른 가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을 닫아야 한다. 웃는 곳과 우는 곳이 생긴다. 소비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저가 위주의 필수 소비가 대세를 이루면서 고가 제품은 선택적 소비만 이뤄진다.

내년 경제 기상이상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혼돈'과 '공포'로 표현한다. 태풍과 폭설이 잦다는 얘기도. 실제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수출을 토대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를 매긴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자동차 업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촘촘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미국의 정권교체 트리거(방아쇠)도 몰가, 일자리 등 경제였다. 살림살이가 승부를 가른 셈이다. 우리나라 정치도 반연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권도 잃는다. 정치는 차치하더라도 사회전반의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사각지대 복지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두려운 내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구름이 몰고 올 비와 태풍을 대비해야 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삼성전자 주가 오른 '후'가 더 문제다



김지수
허정윤
(자본시장부)

지난주만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전망을 놓고 "5만전자 이하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시총 1위 기업 주가가 그까지 내릴 수는 없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4만9900원이라는 신저가를 기록, 팬데믹이었던 2020년 6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4만 전자'가 되고 말았다.

위기를 인지한 것일까.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차사주 매입·소각' 카드를 꺼냈다. 무려 10조원 규모이다. 발표 후 2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13.19% 올랐다. '4만 전자'에 '쭈뼌'한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평단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문제는 주가가 오른 뒤다. 삼성전자가 '국민주'라고 불리는 만큼 이들이 마주할 미래는 혹독할 수도 있다. 온라인 종목토론펙에 가도, 카페에 가도 "8만 전자 되면 미련 없이 팔 것", "평단만 넘겨봐라 다시는 국장 안 한다", "소각은 3조원만 한다며?"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넘친다.

이번 '4만 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탓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HBM 기술 개발과 점유 부문에서 저지른 실기(失機)에서 비롯됐다는 걸 대다수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로부터 촉발된 리더십 부재는 삼성전자의 발

목을 붙잡고 있다.

결국 차사주 매입으로 '반짝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끌어올린 주가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는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총 1위' 조차도 힘이 빠져버린 국내 증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판 투자자들이 국내 다른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떠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증시를 위해서라도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차사주 카드' 외에도 삼성전자가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가절감 대신 '대규모 투자 카드'를 꺼내주길 기대해본다.

/zelkova@

오늘의 운세 11월 22일 (음 10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 날. 48년생 부지런히 앞선 사람을 본받을 것은 인정해야 한다. 60년생 재활동으로 집수리를 계획. 72년생 내키지 않은 술자리가 곤욕스러우면 남 피해 주지 말고 참석 치마라. 84년생 운동은 천천히.
- 소** 37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49년생 하나를 뿌려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이다. 61년생 계약이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성사되지 못한다. 73년생 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일까. 85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 호랑이** 38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50년생 결과가 보이기 적극적으로 행동. 62년생 집안 자랑 하지 말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74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는 떠있는 구름 된다. 86년생 동료에게 한 격려가 큰 성과로 돌아온다.
- 토끼** 3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울 날. 51년생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성. 63년생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75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87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는데.
- 염** 40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52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 있고 비는 오지 않지만 힘을내야. 64년생 시비를 가리다 내 허물도 나온다. 76년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88년생 연인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 뱀** 41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53년생 넓게 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생긴다. 65년생 사촌이 땅을 사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 77년생 모처럼 비가 오니 경제 여건이 호전된다. 89년생 결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 말** 42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54년생 바쁘게 길을 떠나야 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66년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78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90년생 산소문제는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 양** 43년생 준비 없는 동봉서주는 이익이 없다. 55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67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79년생 사랑도 우정도 무엇보다 약속이 수반되어야. 91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 원숭이**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56년생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해본들. 68년생 웃지 않고 보낸 날은 의미가 없다. 80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현명함. 92년생 결혼이 바보 같은 선택임을 깨닫는다.
- 닭** 45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57년생 친척과 대화 중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 6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81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93년생 소개한다고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 개** 46년생 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살할 일이 있다. 58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70년생 그림과 서예를 시작해본다. 82년생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학문이나 덕행이 크게 진전된다. 94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 돼지** 47년생 가장 좋은 협력자가 있다. 59년생 분수를 알고 기다리면 보답이 따른다. 71년생 경관이 화려하고 실속도 모자라. 83년생 어느 단체나 규칙이 있는 것으로 통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9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날개를 얻는 격이다.

김상회의四季

소통



존재하는 동식물, 사물들은 상호관계를 이루며 발생하는 파장에 따라 이기氣로 나타난다. 이로써 바람 같은 신살神殺의 작용도 함께 일어나는데 상담자와 잠시 책상에 마주 앉아서 그 많은 부분을 간파하기는 몹시도 난해하다. 언젠가 TV 드라마에서, 사주를 보러와서 이렇게 말하는 연기자의 장면을 보았다. "그건 그쪽이 알아맞혀야지." 어떤 일로 오셨느냐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자기가 어떤 문제로 왔는지 말해야 용한 거 아니냐는 의미다. 뭔가 답을 찾고자 왔다면 부정적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팔자의 공식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전체적인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금 지식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든지 직장 문제로 일이 꼬였다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소통하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체가 누구이며 객체의 상호 간에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구분되어있는지, 천간天干 지지地支에서 일주日柱인 나와 상대적 관계를 알고 길흉을 파악한다면 미래의 작용력이 밝게 나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구체적이라면 운세의 흐름 개운의 시기를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렇듯 그건 당신이 알아서 맞춰보라면서 입을 다무는 부정적 사고에 사람은 애당초 방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 일이라는 게 앞을 내다볼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이 생긴다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온다면 대비를 하면 된다. 게다가 좋은 일에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면 한탄을 한다. 좋은 일이 훨씬 많은 데도 한 가지 나쁜 일에 매달린다. 그건 사주나 운세가 나쁜 게 아니라 부정적 사고에 발목 잡히는 것이다. 소통으로 마음을 바꿔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해결점에 다다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1	9	3	6				
	6			4				
	2			8				3
	4							9
		7		1		6		
	8							5
2			6					4
				2				8
			8	7	5	2		1

	1	6		5		9		2
		4	2					6
5				9				
		8				2		
4								1
			6			5		
				2				9
8					3	7		
6	7	1		4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2	9	1	8	7	6	9
9	8	6	1	2	7	5	1	8
5	7	1	8	6	9	8	1	2
7	9	8	6	9	1	2	8	1
8	2	9	7	1	5	1	8	6
1	6	1	2	8	8	9	7	5
8	9	7	8	5	1	6	2	1
6	1	5	1	7	2	8	9	8
2	1	8	9	8	6	1	5	7

8	8	7	6	1	9	1	2	9
9	2	1	8	9	7	1	6	8
6	1	9	8	2	1	5	7	8
8	6	9	1	7	9	8	2	1
1	2	1	9	8	8	6	9	7
7	9	8	2	1	6	8	9	1
1	7	8	9	6	1	2	8	9
9	9	1	1	8	2	7	8	6
2	8	6	7	5	8	9	1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佛 화이트의 재발견 ‘샤또 라 루비에르’... “혁신은 계속된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인터뷰
마틸드 뤼통 대표



프랑스 앙드레 뤼통의 마틸드 뤼통 대표가 ‘샤또 라 루비에르’를 들고 있다. /이영FBC

화이트 와인인데 뒤로 빠지지 않는다. 양해를 구하지도 않는다. 당당히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신세계(New World)의 과실 폭탄이나 진한 오크풍미가 아니다. 소비봉 블랑 품종 특유의 신선함에 풍성한 아로마와 구조감을 갖췄다. 웬만한 프리미엄 레드 와인 못지 않게 숙성 잠재력이 있다. 보르도에서도 폐삭-레오냥의 화이트 와인 ‘샤또 라 루비에르 2021’이다. 폐삭-레오냥이라는 테루아가 원래 지닌 특성에서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 없었던 2021년 기후도 한 몫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앙드레 뤼통을 이끌고 있는 마틸드 뤼통 대표는 최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폐삭-레오냥은 프리미엄 레드 와인인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와인 산지로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은 굉장히 드물다”며 “샤또 라 루비에르는 숙성 잠재력 등 화이트 와인의 다양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앙드레 뤼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앙드레 뤼통은 보르도의 전설로 남겨진 와인 생산자이자 와이너리 이름이다. 와인메이커로서 앙드레 뤼통은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와이너리를 재건해 와인의 품질을 올려놓는 것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가꾸어 지역 명소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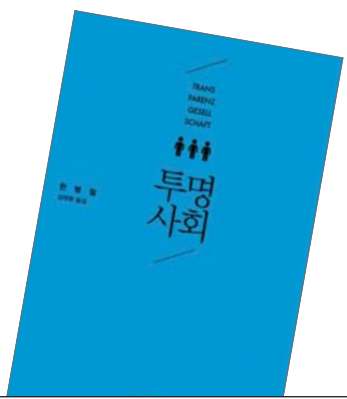
들었다. 와인 재배와 양조에 있어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고, 당시 생산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마케팅에도 적극적이었다. 와이너리로서는 출발점이었던 샤또 보네를 비롯해 현재 샤또 라 루비에르, 샤또 크뤼조, 샤또 구앵스 뤼통 등 6곳을 가지고 있다. 앙드레 뤼통이 지난 2019년 작고한 이후 이제는 2세대와 3세대가 공존하며 와이너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마틸드 뤼통은 앙드레 뤼통의 손녀다. 이번엔 보르도 지도를 펴고 폐삭-레오냥을 찾아볼 차례다. 메독 아래로 넓게 분포한 그라브 지역의 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폐삭-레오냥은 앙드레 뤼통이 특별하게 여기는 지역이다. 원래 그라브 지역에 뚱뚱그려 속했던 폐삭-레오냥을 특색있는 테루아를 알아보고 새로운 AOC(원산지통체명칭)으로 만든 이가 바로 앙드레 뤼통이다. 뤼통 대표는 “보르도 구시가지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며 “보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도 바로 폐삭-레오냥”이라고 전했다. 그라브나 폐삭-레오냥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화이트 와인으로는 소비봉 블랑과 세미옹 품종을 섞어 만드는 것과 달리 샤또 라 루비에르 화이트는 소비봉 블랑 100%다. 힘있는 화이트 와인이나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과도 잘 어울린다. 랍스터나 새우, 아니면 구운 연어도 좋다. 한국 음식 가운데서 생선전은 물론 육전, 잡채 같은 음식과 같이 마시면 좋다. 와이너리의 규모는 크게 확장됐지만 가족 경영 와이너리며, 포도를 직접 재배하는 와인 생산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여러지역에 걸친 방대한 규모지만 샤또 각각의 정체성은 철저히 존중한다. 뤼통 대표는 “대규모 생산자지만 포도를 사들이지 않고 대부분 포도밭 관리부터 양조, 병입까지 직접한다”며 “샤또들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포도를 생산하고 와인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 역시 앙드레 뤼통의 DNA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르도에서는 드물게 토기 숙성 용기인 암포라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품종도 시도 중이다.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무알콜 와인도 시장에 내놨다. 뤼통 대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와인을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상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반응을 들으며 대단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혁신을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통제사회 만드는 ‘투명성’의 폐해

‘투명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현재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투명성’의 폐해를 다룬다. 책에 따르면, 투명성에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 투명성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 인간을 양산해냈고, 이들은 끊임없는 소통과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됐다.



투명사회

한병철 지음/문학과학지성사

책은 “디지털 통제사회는 자유를 빨아먹고 산다. 이러한 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디지털 파놉티콘 주민들이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에 대해 밝히기 시작할 때다”고 말한다. 통제사회는 특수한 파놉티콘적 구조를 띤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된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 달리 현대 통제사회의 주민들은 네트워크화돼 서로 맹렬하게 소통한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닌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투명성을 보장한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수성은 그 속의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전시하고 드러냄으로써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과다 조명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욕망을 조종하고 충족시키는 파놉티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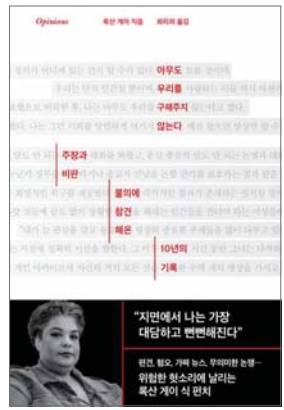
235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록산 게이 지음/최리의 옮김/문학동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정체성 정치부터 인종 문제, 젠더 논쟁까지 당대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페미니스트 저술가 록산 게이가 쓴 칼럼 66편을 묶은 책이다. 저자는 아이티계 흑인이라는 뿌리, 교수라는 지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입각해 사회의 편견, 혐오, 가짜 뉴스, 무의미한 논쟁 등

위험한 헛소리에 편지를 날린다. 록산 게이는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하고 끊임없이 항의함으로써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를 구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세상을 구하는 건 항의하고, 분노하고, 기억하는 ‘단단한 말’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436쪽. 2만2000원.



가장 느린 정의

리아 락슈미 피엡즈나·사마라신하 지음/전혜은, 제이 옮김/오월의봄

‘장애정의’는 백인 중심적이고 단일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장애인 권 운동에서 주변화됐던 장애인 퀴어, 트랜스, 흑인, 브라운의 삶과 필요, 조직화 전략을 중심에 놓는 운동을 의미한다. 계급·젠더·섹슈얼리티·장애·인종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 책에 따르

면, 장애정의 운동은 단지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비장애 중심주의를 깨부수는 해방의 전망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장애정의 운동에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함께 움직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서진 채로도 잘 살 수 있는 불구 미래를 다룬 책. 512쪽. 2만8000원.



자유

앙겔라 메르켈, 베아테 바우만 지음/박종대 옮김/한길사

‘자유: 1954-2021년을 회상하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회고록이다. 16년 동안 독일 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메르켈은 독일 정계뿐 아니라 세계 정치와 국제 사회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권력의 내막을 진솔하게 그려낸 그의 회고록은 자유에 대한 절절한 호소

이기도 하다. “나에게 자유란 내 한계가 어디인지 알아내고, 그 한계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또한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감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내게 자유는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768쪽. 3만8000원.



▲이시바 日 총리, ‘외교능력’ 못매... ‘앉아서 약속’·‘단체사진 불참’
▲우크라이나, 영국 순항 미사일 러시아에 발사 /사진 뉴시스

▲키이우 美 대사관, 공습위험 폐쇄 하루만에 정상화
▲일론 머스크, ‘공무원 재택근무 없앨 것’...연방 정부 예산 700조 절약 목표



▲美 의회, MTF 트랜스젠더 여자 화장실 이용 금지... ‘민주당 하원의원’ 겨냥
▲아이슬란드, 레이카네스반도 화산 폭발...지난해 12월 이후 7번째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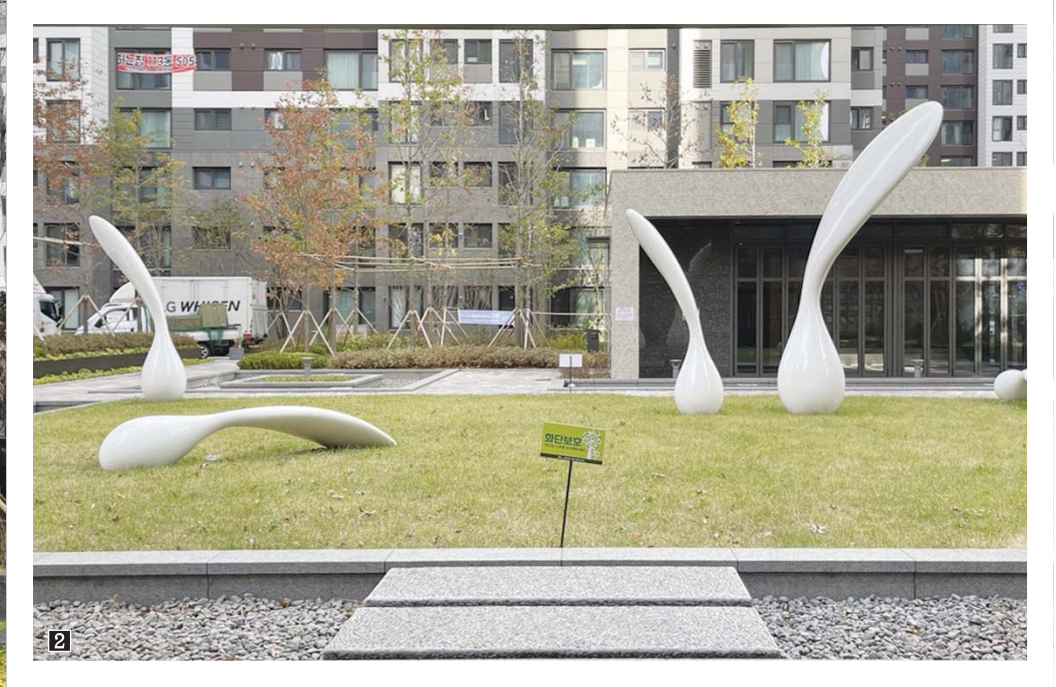


K-뷰티 집약체
올리브영N 성수
오픈
L1



Life

금감원
9년간 겨울마다
사랑의 연탄나눔
L2



예술품 감상, 학자수 그늘서 사색 단지 안 정원 가을 정취에 '흠뻑'



아파트의 미학(美學) 학익SK뷰

마트, 공원 등 편리한 생활환경
연못, 예술품 어우러진 휴게공간
수생비오톱 등 자연생태공간도

최근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SK뷰'. 'SK뷰'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깔끔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련됨을 자아냈다. SK에코플랜트가 학익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난 9월 말 입주를 시작했다.

도보 거리에 학익초, 인주중, 인하대 사범대학중·고교 등이 위치해 있고 수인분당선 인하대, 학익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인천2호선 연장 등이 예정돼 있다.

인근에 흠플러스, 인하대병원, 인천 지방법원 및 검찰청과 미추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됐다.

학익SK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14개동 1581세대의 대단지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됐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용이하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돼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4베이(BAY·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구조를 채택해 대부분의 세대에 넓은 거실과 주방, 침실 공간이 확보돼 있고 특정 세대는 알파룸이나 다락방 같은 공간이 주어져 입주민들이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정문 옆에는 조각상 '에너지, 생동하는 생명체 SH 25-01'이 있다. 시각에 따라 열린 개방성과 다양한 작품의 형태를 느낄 수 있으며 LED 설치로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독서 즐길 수 있는 '힐링북가든' 꽃망가나무 등 식재 '로맨틱가든' 테마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풍성

단지 중앙에 있는 '갤러리아아트rium'은 예술적 미를 담은 조형적 휴게시설과 모던한 연못, 미술장식품이 조화롭게 이뤄져 있는 럭셔리 휴게공간이 조성돼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 '수생비오톱'에는 개구리와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햇대 등 터전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어냈다.

'힐링북가든'에서는 선비의 지혜를 상

징하는 학자수 '회화나무' 그늘 아래서 미래의 꿈을 꾸며 여유로운 도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질은 녹음이 드리워진 팽나무 그늘 길에서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블루그린가든'은 여유로운 사색을 즐기는 휴게공간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다양한 테마로 만들어져 있다.

침팬지가 살고 있는 밀림으로 들어가 숲을 탐험하고 오르내리며 자연을 체험하는 모험 공간, 동실동실 떠다니는 구름 사이를 지나다니며 다양한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놀이공간, 자이언트 딸기에서 마켓 놀이와 쿠키 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다양한 재미를 만들어가는 공간, 반딧불이를 따라 청정 자연에서만 파는 환상의 꽃을 만나면서 놀이를 경험하는 스토리텔링형 놀이공간 '판타지블라썸'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키즈카페, 운동시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야외 피트니스그라운드, 작은 농장을 즐길 수 있는 팜하우스 등도 있다.

단지 후문에는 꽃망가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로맨틱가든'이 조성돼 있다. 바람에 흠날리는 이색적인 그라스를 바라보며 한가로이 쉼을 즐길 수 있는 로맨틱 휴게공간이 있어 단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1 조각상 '에너지, 생동하는 생명체 SH 25-01'. 2 연못과 예술작품으로 꾸민 갤러리아아트rium. 3 '학자수' 회화나무가 식재된 힐링북가든. 4 단지 내 돌 조각상. 5 침팬지 테마의 놀이터. /전지원 기자